

## “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교회는 주님의 책망을 받았다 ”

### ■ 이종윤 원로목사

소아시아에 있던 에베소교회는 빛모섬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모습을 계시로 본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았다.

에베소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자칭 사도라는 거짓 교역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됨을 드러낸 교회로서 칭찬을 받았다. 악한 자들은 니골라당을 연상시킨다. 니골라는 언어학적으로 니콘(삼키는 자, 이기는 자)과 라오스(백성) 그리고 히브리어로 발라(삼킨다)와 암(백성) 즉 백성을 삼키는 자라는 뜻이 있다. 우상숭배와 행음으로 백성을 삼켜 망하게 하는 이단종파였다. 에베소교회가 정통 진리를 지키면서 이단 사이비의 비진리를 드러내는 수고를 했다고 인자되신 부활하신 주님의 칭찬의 말을 들었다.

에베소교회는 교리적 정통과 정행이 있어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린 이유로 주님의 책망을 받았다. 이는 형제사랑(Philia)을 버렸다는 수평적 사랑이 아니라 주 예수님 사랑(agape) 즉 수직적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다.

AD53년경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간 매일 5시에서 10시까지 요즘 시간으로 11시에서 16시까지 성경 강좌를 열었다. 점심시간을 빼고 매일 4시간씩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행19:9-10)

1907년 평양대각성운동 당시 믿음의 선진들은 50리~70리 길을, 소에 먹을 것과 덮을 것을 싣고 걸어와 사경회에 참여했다. 평양에서 폭발된 이 회개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논밭에서 가정에서 상량 위에서 심지어 길거리에서 통곡하며 ‘마치 지옥 뚜껑이 열린 것처럼’ 각종 죄들이 모든 사람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이 나라 전국을 불태워 ‘평양대부흥운동 - 각성운동’ 이 이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은 교회사에서 웨일스 성령운동과 함께 기록으로 남아 있다.

한국교회도 주님 사랑의 열도가 크게 끓어 많은 순교자들이 배출되었다. 그러나 이제 물량주의, 기복신앙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잃어버린 첫사랑을 우리도 다시 회복할 때가 되었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주님을 수직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면, 이웃사랑의 수평적 사랑은 자동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다. 주님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를 주님 사랑하는 이라면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고 하셨다. 그 열매를 영생으로 주석하는 이들이 있으나 영생은 구원받는 성도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미 주신 것이므로 여기서 생명나무의 열매는 내세에 이기는 자 즉 회개한 자 또는 순교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상급을 말한다.

뒷면으로 계속 →

앞면에서 계속

그 상급을 어떻게 주어 먹을 것인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다. 마치 복증의 생명이 이 세상을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아직 가보지 않은 내세의 일을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미래에 받을 상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잃어버린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여 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한국교회가 되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상으로 받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한다.

-한국장로신문 [제 1550호] 2017년 5월 27일 발행-

<h3 style="margin: 0;">English Worship Service</h3>	
[Room 802, 11:20 am]	[Presider : Deacon Kichan Yoo]
[Preacher : Pastor Euichang Kim]	
* Call to Worship .....	John 4:24 .....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	Congregation
* Doxology .....	1 .....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	Sister Lumie Hwang
Hymn .....	2 .....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	Mark 1:1 ..... Presider
Welcome/Fellowship .....	Congregation
Offering .....	Congregation
* Offering Hymn .....	50 .....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	Presider
Anthem .....	Congregation
Sermon .....	"The Beginning" ..... Pastor
* Hymn .....	619 ..... Congregation
* Benediction .....	Pastor
* Lord's Prayer Song .....	635 ..... Congregation
(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	

<h3 style="margin: 0;">우리의 비전 (vision)</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li> <li>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li> <li>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li> </ul>	<p>서울교회 QR코드</p>
---	---	------------------

<b>부 목 사</b>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b>교육전도사</b> 김은숙 박미라 최승원	<b>협동목사</b>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b>선 교 사</b> 강아급주하나,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경, 양재성이현주, 바켓잔(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을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경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녹(인도), 정상진홍성일(필라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리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타기노동자), 필리몬, 프로산또, 수레시, 수바스, 이경엽, 알로롱, 비시누뽀도, 보디소프, 린롱, 수란존(방글라데시), 김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명일, 김덕수(군선교)	

	<b>대한예수교 장 로 회</b>	<h1 style="margin: 0;">서울교회</h1>		
	<b>SEOUL PRESBYTERIAN CHURCH</b>		<b>이 종 윤</b>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 믿음, 소망, 사랑이 다시 사는 날 ”

### ■ 요 20:11-18

골고다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에 많은 제자들은 당황하고 의기소침해져 절망에 빠졌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모를 리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소망도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1. 죽었던 믿음이 다시 살아야 한다  
 예수님은 예언하신대로 오셨고, 예언하신대로 사셨다가, 예언하신대로 죽으셨으며, 그리고 예언하신대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들의 모든 믿음과 소망은 산산조각이 났고 믿음도 소망도 사라져 각각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앞장서서 예수님을 섬기던 도마도 낙심에 빠지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은 두 번째 사랑을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죽었던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시금 아름답고 신비하게 소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 28:20)는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2. 죽었던 소망이 살아야 한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 걷는 이가 예수님이니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매시리로 믿었고, 그의 왕국이 도래할 것을 꿈꾸고 있었던 사람들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모든 소망을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생명과 영혼을 구할 메시야가 아닌 로마의 입계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해방자 메시야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믿음과 소망은 모두 죽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사흘만에 부활하라!” 는 주님의 말씀을 아직도 믿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전혀 소망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굳게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롬 4:17). 이와 같이 우리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섬기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3. 사랑이 다시 살아야 한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믿음도 소망도 죽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죽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여인이 한 방중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이하는 마음 외에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마리아 역시 믿음도 소망도 끊어졌지만 그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남아있었기에 사체가 들어 있는 무덤으로 두려움과 무서움도 없이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 예언은 갈보산 언덕 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또한 빌라도 법정에서 갖은 조롱과 치욕의 수난을 당하면서도 사도 끝까지 의연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후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는 예수그리스도께 호기심이나 믿음이나 소망이 있어사라기보다는 오직 주님을 사랑했기 때 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리아여” 라고 부르시자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를 따라가는 것같이 죽었던 믿음과 소망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맺는 말  
 항상 있어야 할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잃어버릴 뿐 만 아니라 찾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인 십자가가 있는 한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으며, 잃어버린 믿음과 소망도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분명하게 믿는다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를 사랑하는 이요, 그는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비록 세상에서 환난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항랑없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 엮여 오직 주님을 믿고 소망하시는 서울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 이종윤 원로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 주 일 예 배

## 찬 양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조원영 목사	이계홍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서명철 목사	이강진 장로
III 오후 2시	장석남 목사	양춘경 장로

오후 5시 인도: 서명철 목사, 설교: 이종운 원로목사

목 도 ..... 다 함 께  
 성 시 ..... 단 9:19 ..... 인 도 자  
 찬 송 ..... 162(151) ..... 다 함 께  
 기 도 ..... 임선철 집사  
 성 경 ..... 계15:1-4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마지막 재앙의 시작" ... 설 교 자  
 \* 찬 송 ..... 70(79) ..... 다 함 께  
 \* 축 도 ..... 설 교 자  
 \* 주기도송 ..... 다 함 께

암례송 Prelude ..... 오르가니스트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99:1-3...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 인 도 자  
 \* 찬 송 Hymn .....2(6)....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39(시 95)...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 말 은 이  
 찬 송 Hymn .....29(29)...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대상 4:9-10 ...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 다 함 께  
 봉헌 Offering .....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 인 도 자  
 찬 양 Anthem .....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 다 함 께  
 설 교 Sermon ..... "차원 높은 복"... 전재홍 목사  
 \* 찬 송 Hymn .....312(341)...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 다 함 께

##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인도, 설교: 장석남 목사

기 도 ..... 최현인 권사  
 성 경 ..... 창39:19-23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영광에서 영광으로 함께 하십시오" ... 설 교 자

##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분당 피아니스트: 홍혜란 · 김양연 · 박수강 · 김복화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설 교 ..... 장석남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김현정11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연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요 20:17)		
영어예배	예루살렘				지난주 성구			
수요 I 부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 교 회 소 식

### ◆ 모 임

1. 새벽기도회 / 그 동안 교회 사정으로 인하여 인터넷 영상을 통하여 드려오던 새벽기도회를 정상화하여 4월 9일(월)부터 교회에서 새벽 5시 30분에 모입니다.

### ◆ 알 림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주일 오후 12시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주일 오전 10시20분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2시30분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2시
11.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12. 의료 상담 / 이번주 상담은 김동준(내과), 이종욱(진검)입니다. 주일 오전 10시10분 - 오전11시까지  
다음주 상담은 노계현(안과), 오병호(피부과)입니다.  
1층 서적부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8993-5558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면에서 계속 13.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
14. 전재홍 목사 소개 영남신학대(B.Th.) 대구카톨릭대 법과대학(LL.B.) 숭실대 기독교대학원(Th.M.) 장신대 신대원(수로) 카톨릭대 법대대학원 법학박사(LL.D.) 서울교회 협동목사

##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1,035명	269명	250명	1,554명	157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4/1)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4월 1일	헌 금	71,342,600	
"	성 레 비		2,432,000
	특별예배비		56,020
"	찬양운영비		6,850,000
	선 교 비		500,000
	경 조 비		70,000
	출 판 비		270,000
	통 신 비		45,570
	복리후생비		342,580
"	차량유지비		15,000
	사무용품비		6,400
	소모품비		494,550
	수선유지비		2,428,500
	잡 비		600,000
	식당운영비		579,050
	합 계	71,342,600	14,689,670